

수능 시험지 판형 변경 영역별 한 묶음 만든다

OMR 카드 답안지 십의 자리 '0' 표기 허용

올해 11월12일 치러지는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험지 판형과 정답 표기 방식이 일부 바뀔 예정이다.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30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밝힌 수능 시행계획에 따르면 4교시 탐구영역 및 5교시 제2외국어·한문영역의 시험지가 올해부터 2권으로 제작되는 직업탐구영역의 경우 영역별로 한 권으로 만들어진다.

그동안 탐구영역 및 제2외국어·한문영역 시험지는 인쇄 기술상의 문제 때문에 영역별로 2~5권씩(사회탐구 3권, 과학탐구 2권, 직업탐구 5권, 제2외국어·한문 2권) 나뉘어 제작됐다. 탐구영역의 경우 사회탐구는 11과목, 과학탐구 8과목, 직업탐구 13과목 등으로 과목수가 많아 시험지 쪽수가 직업탐구의 경우 총 72쪽에 달하는데, 한 번에 자동으로 인쇄할 수 있는 최대 쪽수가 16쪽에 불과해 한 번에 인쇄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수험생들이 여러 권으로 나뉘어 있는 시험지 가운데서 자신이 선택한 과목을 고를 때 헷갈릴 수가 있고 이 과정에서 오류가 종종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평가원은 설명했다.

탐구영역 시험을 치를 때는 자

3.25(수)	세부시험계획 발표
7.5(일)	시험 시행 공고
8.5(수)~8.13(화)	원서 교부 및 접수
11.12(일)	시험일
11.12(일)~16(화)	문제 및 정답 이의 신청
11.15(수)~12.5(수)	채점
12.9(수)	성적 발표

신이 선택한 시험지만을 과목 순서대로 하나씩 뽑아 과목당 30분씩 풀게 돼 있다.

평가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쇄 기술을 보완해 시험지를 한 권으로 제작하기로 했다. 또 문제지 제일 앞면에는 표지를 붙여 과목별 쪽수를 안내함으로써 수험생들이 쉽게 선택과목을 찾을 수 있도록 계획했다.

이번 수능시험에서는 또 수리영역 단답형 문항에서 정답이 한 자릿수인 경우 OMR 카드 답안지에 십의 자리 '0'을 표기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답이 '8'일 경우 지금까지는 일의 자리에만 '8'을 표기해야 정답 처리가 됐으나 앞으로는 '08'로 표기해도 정답으로 인정된다.

전남 농산어촌 소규모 초·중학교 전면 무상 급식 시행

도교육청 3월부터 ... 165개교 7,014명 혜택

전남지역 농산어촌의 소규모 초·중학교 학생들은 앞으로 급식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달부터 도내 농·산·어촌지역 학생 수 50명 이하 초·중학교 165개교(분교 44개교 포함)에 대해 전면 무상 급식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초등학교는 109개교(32개 분교)에 4천852명, 중학교는 56개교(44개 분교)에 2천162명 등 모두 7천14명이다. 이는 전남지역 전체 초·중학교 703개교 가운데 23.5%로, 학교 4곳당 1곳이 무상 급식 혜택을 받게 됐다.

도 교육청은 이번 무상급식을 위해 45억 6천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3월부터 식품비와 운영비, 인건비 등이 전액 지원된다. 또 앞으로 학생 수가 증가되거나 통폐합 등의 변동사항이 생겨도 무상급식은 계속 이뤄진다.

이번 무상 급식으로 초등학교를 둔 학부모는 연간 36만원, 중학생은 40만원 가량의 급식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도 교육청의 이번 무상 급식 조치는 소규모 학교의 급식 운영에 따른 행정·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전남도내 일부 소규모 학교

에선 적은 학생수 때문에 급식 운영비 적자가 늘어나 이를 중단하거나 급식의 질도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류남규 도 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은 "농촌지역의 경제 여건이 갈수록 열악해 지고 있는데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결손, 조손, 다문화 가정 등도 많아 학부모들의 급식비 부담이 큰 상황"이라면서 "무상 급식의 확대 시행으로 전남도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지역에선 매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등 2만 9천여명이 무상급식을 받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21분 달뜨기 08시 53분
 해질 18시 53분 달지기 --시--분

유채꽃 떨어질라
흐린뒤 낮부터 맑아지겠으며 해안지방은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다.

광주	흐린 뒤 맑음	4/12C
목포	흐린 뒤 맑음	4/10C
여수	흐린 뒤 맑음	6/11C
완도	흐린 뒤 맑음	4/13C
구례	흐린 뒤 맑음	1/12C
해남	흐린 뒤 맑음	2/12C
장흥	흐린 뒤 맑음	2/13C
고흥	흐린 뒤 맑음	2/12C
순천	흐린 뒤 맑음	4/13C
영광	흐린 뒤 맑음	2/10C
진도	흐린 뒤 맑음	3/12C
진주	구름 많음	3/11C
남원	흐림	1/12C
옥산도	흐린 뒤 맑음	4/18C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5m	목포 05:15	10:20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5m	여수 11:39	05:46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4/1(수)	2(목)	3(금)	4(토)	5(일)	6(월)
날씨						
최저/최고	2/10	0/15	2/17	5/16	5/16	5/18

영아 버린 10대 미혼모의 눈물 “양육비가 없어서 그만...”

“우리 아기는 건강하고 아픈 데는 없어요.”
지난 29일 밤 10시경 광주동부경찰서 형사과는 한 10대 미혼모가 허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모(17)양은 전날 자신이 낳은 남자아이를 남의 아이인 양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들어나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자신의 아이를 태어난 지 3시간도 안돼 남에 손에 맡겼다는 생각에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 복받쳐오른 것이다. 자신 역시 어린 시절 전국을 떠돌며 막노동 등을 해온 편부 슬하에서 힘들게 살아온 기억이 새삼 떠올랐다.

이양의 기막힌 사연이 시작된 것은 지난해 여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전북 익산에 살고 있는 박모

(25)씨를 만나 상관계를 가진 것이 화근이었다. 한 달 뒤 이들은 임신사실을 알게 됐고, 박씨는 종적을 감췄다. 이양은 옷가게 점원으로 일하며 출산 직전까지 약삭같이 돈을 벌었다. 하지만 병원비는 물론, 태어날 아이 양육비를 대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이양은 아이를 집에서 홀로 출산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 아이는 보호소로 보내지겠지라는 생각에 ‘집 앞에 버려진 것 태어난 남자아이를 돌보고 있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했다.

담당 경찰은 “(돈이 없어) 임신한 뒤 한 번도 병원을 가지 않았다”는 이양의 말에 할말을 잃은 표정이었다.

결혼식장서 채권 추심 과태료 1,400만원

앞으로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등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빚을 받아내려고 할 경우엔 과태료 1천400만원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30일 불법적이고 과도한 채권 추심을 막기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올해 8월7일 시행되는 데 맞춰 이 같은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연합뉴스

초·중·고 영어회화 강사 5천명 선발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등학교의 영어회화 전문강사 5천명을 선발키로 하고 30일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모집계획을 공고했다.

모집인원은 초등학교 2천명, 중·고교 3천명 등 총 5천명이고, 최종 선발·배치 인원은 시·도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선발된 초등학교 강사들은 올해 9월부터 방과 후 학교 강사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정규 수업을 담당하게 된다.

중·고교 강사들은 오는 9월부터 수준별 영어 이동수업을 맡게 된다.

구체적인 응시자격과 시·도 교육청별 선발인원은 오는 5월 발표되는 선

발 계획을 확인해야 한다. 영어강사의 급여는 연간 2천600만원 수준이고, 기본적으로 1년씩 계약하되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최장 4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 교육청별로 세부 선발계획이 확정되면 6~8월 1차 서면심사(영어인증시험 점수, 영어교육 경력, 자기소개서), 2차 심층면접(적성, 영어구사능력 등) 및 수업실연(교수·학습지도안 작성 포함)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교수·학습 지도안은 영어로 작성해야 하고 수업 실연과 심층면접도 영어로 진행된다.

/연합뉴스



“일제고사 반대” 전교조 광주지부 소속 교직원들을 비롯한 학부모 단체 회원들이 30일 오후 광주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일제고사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31일 치러지는 전국 초·중학생 진단평가는 학교와 학생을 서열화하는 비교육적 시험”이라고 주장했다.

광주 모든 학교 ‘학부모 동아리’ 운영

시교육청 적극 지원

광주시교육청이 학부모들의 평생 학습을 적극 지원한다.

광주시교육청은 30일 “학부모들의 평생 학습 지원을 위해 280여곳에 이르는 모든 학교에서 학부모 동아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영 분야는 합창과 합주, 서예, 무

용, 동화구연 스포츠댄스 등으로 모든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으며 알찬 운영을 위해 20명 인원으로 꾸릴 계획이다.

이 활동은 학교를 지역의 문화·체육활동 공간과 평생 학습 시설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취지로 이뤄지며 그동안 학교 단위로 운영됐지만 모든 학교로 확대되기는 올해가 처음이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학교 운영 참여를 유도하는 등 지역사회와 학교 간 상호 이해와 동반자 관계 강화도 기대된다.

시 교육청은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강사료, 재료비, 교재비 등 운영비로 학교당 15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번 추경예산안에 모두 7억여원을 반영했다.

/박진표기자 lucky@

장기예 무안 - 장사(장가게) 직항!!!

무안 - 장사(장가게) 직항!!!

2009년 3월 31일 무안 - 장사(장가게) 직항!!! **749,000원**

2009년 4월 7일 무안 - 장사(장가게) 직항!!! **729,000원**

광주MBC분회방송 중 문의 062-226-6070